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생명보험 정산거래, 일관성 있는 감독 필요

- 미 회계감사원(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)은 생명보험 계약을 거래하는 생명보험 정산거래(Life Settlements)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 모두에게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.
 -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투자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후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되는 계약이며,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노년층에서 수요가 발생함.
 - 2008년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이루어진 평균 보험계약액은 230만 달러, 보험계약액 200만 달러 당 연간보험료는 9만 8천 달러로 나타났으며, 2009년 총 거래된 보험계약액은 70억 달러로 2008년 129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함.
 - 회계감사원은 정산거래를 감독제도의 불충분으로 보험계약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투자자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.

- 일부 주에서는 생명보험 정산거래를 감독하는 법안이 미비하고 법안이 마련된 주들도 감독규정이 상이하며, 거래의 양 당사자를 관할하는 기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일관된 감독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워싱턴 DC와 12개 주는 아직 생명보험 정산거래를 감독할 법률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, 이외의 38개 주에서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이전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감독기관 관할이고 정산거래의 투자자는 증권 감독기관 관할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에 일관성이 결여됨.
 - 이러한 감독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정산거래가격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, 투자자는 장수리스크 뿐만 아니라 생보사와의 법적문제, 자산 유동성 문제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.
 - 회계감사원은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결여한 금융상품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하고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통일된 감독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
(Bloomberg, 7/22)